

제1차 G-20 정상회의: 국제정치경제적 의의와 향후 전망

이 동 휘 교수 (Prof. LEE Dong-hwi)

2008년 11월 15일 워싱턴에서 개최된 G-20 정상 회의는 단시간내 개최될 정도로 주요 경제국들이 미국발 금융 위기의 전세계적 확산에 대한 위기의식 공유를 보여 주었다는 점과 2009년 4월말 이전 제2차 정상회의 개최에 합의함으로써 회의의 연속성이 확보되었다는 점에서 일단 ‘불완전한 성공’(incomplete success)으로 평가할 수 있다.

20개국 정상들은 시장 원칙, 개방된 무역·투자 제도 및 ‘효율적으로 규제’되는 금융 시장 등이 경제 성장, 고용과 빈곤 퇴치에 긴요한 역동성, 창의성 및 기업 정신 등을 고양할 수 있다는 신뢰를 재확인하였다.

G-20 정상회의 성과들 중 가장 큰 의미는, 비록 ‘체제의 개혁’(reform of system)이 아니라 ‘체제 내의 개혁’(reform within system)으로 일단 합의되었으나, 지난 수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현 국제 금융 체제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됨으로써 국제경제 체제 재편이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IMF와 GATT를 축으로 1944년 합의된 브레튼우즈 체제는 1970년대 이후 이미 ‘현실적으로는 존재·작동되지 않는 제도’(non-system) 또는 ‘후기 브레튼우즈 체제’(post-Bretton Woods system) 등으로 일컬어질 정도로, 태동될 당시의 힘의 분포 상에서는 더 이상 국제 경제 체제가 원활히 작동될 수 없었다.

이는 1970년대 이후 나타난 ‘단일(정치·군사적 측면)·다극화(경제·통상적 측면)’의 세계 위계질서가 두 가지의 불연속성, 즉 1) 정치·군사적 측면에서의 미국의 힘과 경제·통상적 측면에서의 미국의 힘 사이에 존재하는 단층(斷層)과 2) 무역 면에서의 미국의 힘과 금융 면에서의 미국의 힘 사이에 존재하는 괴리(乖離)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G-20 정상 회의가 1970년대 이후 글로벌 거버넌스의 기제 역할을 해 온 G-8의 테두리 내 G-20 재무장관 회의를 기반으로 개최되었다는 점은 현실적인 힘의 분포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다. 이번 전세계적 차원의 금융 위기는 새로운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 모색의 계기로 작용해

향후 G-8 확대 논의를 가속화시키는 한편, 그 논의 과정에서 L-20(G-20 정상 회의)안이 유력한 또 다른 대안으로 더욱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금융 위기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EU 국가들과 다수의 신흥국들은 국제 금융 제도의 근본적 개혁, 즉 새로운 브레튼우즈 체제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미국은 현 체제의 개선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등 신 브레튼우즈 체제 구축을 둘러싼 국가간 이견이 노정되고 있다.

향후 G-20 정상 회의가 2009년 4월말 2차 회의 이후에도 연속성을 지니고 국제금융 체제 개혁을 다루는 책임 있는 회의로 계속 기능할 경우, EU를 중심으로 한 신 브레튼우즈 체제 구축론이 최우선 의제의 하나로 지속 거론될 것이나, 쉽게 결론지어질 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G-20 정상 회의는 미국의 경제력에 대한 현실적 재평가의 기회가 된 동시에 새로이 부상하는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신흥국들의 중요성에 대한 재인식 과정이 되었는데, 비록 미국의 경제력에 대한 평가 절하가 불가피하더라도, 달러화의 기축통화 역할 변경은 미국 경제력에 대한 대안의 부재로 상당 기간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G-20 정상 회의가 그간 세계 경제 문제를 조정해 왔던 G-8의 한계를 재확인시킨 측면이 있으므로, 향후 G-8 확대·개편 논의는 더욱 추동력을 얻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G-13(G-8+O-5), 'G-13+ α ', L-20 등의 안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G-8의 확대안 자체가 G-8 내부의 이견, O-5 내의 상이성 및 G-8과 O-5 간의 대립적 시각 존재 등으로 논의가 복잡화되고 있어, G-8 확대론의 공식 의제화가 G-8의 차차기 순번이 시작되는 2018년까지로 지체될 가능성도 상존해 있다고 판단된다. 그 경우, 기존의 G-8과 이번 금융 위기로 의미를 부여받게 된 G-20는 일정 기간 병행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즉 G-7 재무장관 회의는 G-8 정상 회의를, G-20 재무장관 회의는 G-20 정상 회의를 준비하는 형태가 구축됨으로써, 국제경제 현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체계가 이원화되는 데서 초래될 비효율과 혼선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